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음악 선택 과목 개설 현황 분석

An Analysis of the Status of High School Music Elective Course Offerings under the 2015 Revised Curriculum

정은정*

Eun Jung Jung

초록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음악과 선택 과목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나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유형별 고등학교의 음악과 교육과정을 전수조사하여, 설립별·유형별·학과별·과목별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이후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음악 선택 교과 개설률은 모든 학교 유형별로 증가하였으나, 일반고에 비해 자사고, 특목고, 특성화고는 다과목 개설 비율이 낮았다. 또 국·공립교에 비해 사립교의 다과목 개설수가 적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술 과목 선택권 보장 체계를 마련하고, 유형별·설립별로 제반사항을 공유하여 협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주제어: 음악교육,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선택 중심 교육과정, 과목 선택권, 선택 과목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music elective courses based o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A complete enumeration survey on the music curriculum of all types of high schools across the nation using NEIS from 2018 to 2021 was conducted. Course offerings were categorized by educational foundation, type, department, and subject. The result of the study revealed that, after applying the 2015 revised curriculum, the rate of offering music electives in Korean high schools increased for all school types. Compared to general high schools, private, special-purpose, and vocational high schools, and vocational high schools had a lower rate of opening multiple subjects. Also, compared to national and public schools, the number of courses opened in private schools were small.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a system for guaranteeing the right to choose art subjects needs to be provided and all matters by educational foundation and type shared for cooperation.

Key words: music education, 2015 revised national music curriculum, elective-centered curriculum, right to choose subjects, elective subjects

* Corresponding author, E-mail: primaj@naver.com

Teacher, Pohang Hight School, Aho-ro 50, Buk-gu, Pohang-si, Gyeongsangbuk-do, Korea

Received: 29 November 2022, Reviewed (Revised): 30 December 2022 (15 January) 2023, Accepted: 26 January 2023

© 2023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I. 서론

OECD는 DeSeCo 보고서를 통해 현대사회가 겪고 있는 빈곤과 불평등, 복잡한 갈등과 분쟁 문제 해결을 위해 핵심역량을 기르는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OECD, 2005; Lee & Song, 2007). 이 프로젝트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OECD Education 2030에 의하면 핵심역량을 기르는 교육과정 설계 원리 중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이다(OECD, 2018; Lee & Paik, 2019).

과목 선택권이란, 학교 교육과정 설계 시 학생 개인이 학교가 개설할 과목에 대한 실질적 수요자로 참여하도록 하고, 과목 선택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을 뜻한다(Hu & So, 2014). 이는 학생에게 자신의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 구현의 기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제7차 교육과정부터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도입하였고, 학교와 학생의 교육과정 결정 가능성 및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해 왔다(Han, Lee, Lee & Lee, 2018).

과목 선택권과 관련한 그간의 연구는 주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보 방안(So, 2002) 혹은 선택 중심 교육과정 실현 방안(Kim, Kim, & Kim, 2013),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실현 방안(Han, 2011; Park, 2016; Chung, Kim, Son & Lee, 2017; Han, Lee, Lee, & Lee, 2017)에 관한 내용이다. 이러한 선행 연구에 의하면,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담고 있는 과목 선택권은 학생에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 부여와 함께 선택지를 얼마나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가를 함께 논의하여야 실현 가능하다(Hu & So, 2014). 즉 과목 선택권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앞서 학생들에게 과목과 관련하여 선택할 수 있는 것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제공하고 있는가로부터 시작한다(Hong, 2000, 2001; Jung et al, 2006; Hong, 2011). 이러한 맥락에서 학생의 맞춤형 교육과정 실현은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에게 과목개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경로를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가능한데, 이는 학생이 과목 선택권을 이행할 때 실현된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과목 선택권 구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Hu, 2004; Hong, 2011). 선택 과목의 그 선택권을 학생이 아닌 학교가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학생의 과목 선택권은 제한적이다. 학생 선택은 주로 ‘과목’보다는 ‘과정’ 선택, ‘적극적’ 선택보다는 ‘소극적’ 선택, ‘자유’보다는 ‘제한적’ 선택에 가까웠다(So, 2002).

음악과에서도 선택 중심 교육과정과 관련한 논의는 꾸준히 있었다. 음악과에서의 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실현 방안(Yang, 2017; Kim & So, 2021). 음악 선택 과목 구성 및 운영 방안(Park & Kim, 2021; Lee, 2022a, 2022b; Lee, Jeong & Oh, 2022), 음악과 선택 과목 개설 현황 분석(Bae, 2019)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음악과의 선택 과목 필요성

이나 가능성에 관한 연구이며, 음악 교과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개설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연구는 아직 없다. 무엇보다 2023년부터 일반 고등학교에 부분 도입되고, 2025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는 학생 선택 교육과정의 전면적 운영(MoE, 2021)이라는 과제를 앞두고 있어, 학교가 음악 선택 과목을 얼마나 개설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추이는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2018년부터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교가 개설한 음악 선택 과목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음악 선택 과목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통 과목 외 자율편성되는 선택 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하고, 학생 개인이 흥미와 적성 및 진로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위 학교가 매 학기 편제하는 교육과정 목록을 바탕으로 음악과의 어떤 선택 과목이 실제 개설되어 학생들에게 이수의 기회를 제공하였는지를 파악하여야 음악과 운영 현황을 알 수 있고, 고교학점제를 대비한 과제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과목개설 여부와 개설 개수를 파악한다고 해서 음악 교과 선택의 자율성과 다양성 실현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본 연구는 학교가 학생에게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아닌, 음악 과목 선택지가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전개하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교의 학교 교육과정이다. 연구의 내용은 학교가 개설한 음악 선택 과목 현황이다. 연구의 자료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https://www.neis.go.kr>, 이하 나이스)의 교무학사_교육과정_과목개설 메뉴에서 학교가 학기별로 편제한 음악 선택 과목 전체이다.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음악 선택 과목 개설의 변화는 어떠한가?

둘째,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정하는 학교 유형별 학점 배당 기준과 음악 선택 과목 개설 현황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학교 설립별 음악과 선택 과목 개설의 차이는 어떠한가?

고등학교 유형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 구분하는 일반 고등학교(이하 일반고), 특수 목적 고등학교(이하 특목고), 특성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 등의 구분으로 전개하겠다. 학교 설립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제1장 및 제4장에 따라 국·공립 및 사립으로 구분하여 전개하겠다.

II. 이론적 배경

1. 선택 중심 교육과정

‘선택’의 사전적 의미는 ‘여럿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골라 뽑음, 몇 가지의 수단을 의식하여 그 가운데서 어느 것을 골라내는 작용’이다(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그러므로 선택을 위해서는 여럿이라는 수단을 제공해야 하고, 스스로 고를 수 있는 행위의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교육과정에서 정의하는 과목 선택의 의미도 이 용어의 뜻에 기반하여 고찰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과정은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명칭 한다(MoE, 2022, p. 7).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학생의 진로 선택에 따라 희망하는 과목을 자신의 학습 능력에 맞춰 선택하고 이수하는 교육과정이다(Jung, 2020). 이러한 정의에는 ‘교육과정 자율 운영’, ‘과목 수요’, ‘과목 선택권’ 등의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다. 즉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은 학생의 과목 수요를 전제하여야 하며 과목 선택권 보장을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개별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명시화하고, 고등학교 2~3학년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시도하였다(So, 2002).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이를 확대하여 고등학교 전 학년에 선택 교육과정이 되도록 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다시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명칭하고,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유연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교과(군)별 필수 이수 단위와 학교자율과정을 명시화하였다.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학생별로 교육과정이 설계될 수 있어야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즉 학교는 학생의 진로와 연결된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하고, 학생들은 다양한 선택지 가운데 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절에서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처음 나타난 제7차 교육과정부터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 문서에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과목 선택권을 어떻게 보장해왔는지 검토하겠다. 다음 <Table 1>은 제7차 교육과정(MoE, 1997, p. 15), 2007 개정 교육과정(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8, p. 11), 2009 개정 교육과정(MoEST, 2009, p. 17), 2015 개정 교육과정(MoE, 2015, p. 23) 문서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Table 1> Contents on the right to select subjects by period of curriculum revision

Curriculum	Contents of subject selection sight
The 7th	• Students make their own courses by collecting the subjects they have chosen and completed. • Schools organize elective courses to reflect students' needs.
The 2007 revised	• The school may assist students in choosing their career paths and establish and operate courses necessary for completing optional subjects.
The 2009 revised	• Schools organize elective courses reflecting the needs of students. • If a student of a certain size or larger requests the opening of a specific optional subject, the school must open it. • If there is a student who wishes to complete an optional course that has not been opened by the school, the completion at another school that has opened the subject shall be recognized.
The 2015 revised	• Schools should try to open general elective courses that students wish to complete, and allow all students to complete at least three courses in career elective courses in ordinary subjects. • If a student of a certain size or larger requests the opening of a specific optional subject, the school must open it. • The school actively guides information on completing optional subjects in connection with career guidance so that students can systematically complete subjects suitable for their career path.

제7차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과목을 스스로 선택하여 자신의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는 것을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원칙으로 하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가 학생의 진로 선택을 돕기 위해 선택 과목 이수에 필요한 과정을 개설·운영하도록 조항을 개정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가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선택 과목을 조직하고, 다른 학교에서 개설한 과목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모든 학생이 일정 학점 이상의 진로 선택 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학교는 학생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하였다. 즉 국가 교육과정은 개별 학생의 과목 수요와 선택권을 보장하여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확대되도록 개정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2. 음악과의 선택 과목

음악과의 선택 과목은 예술·체육 교과 영역 중 예술 교과(군)에 속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3개년 동안 교과(군)별 일정 학점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졸업에 필요한 이 이수 학점이 학교 유형별로 상이하다.

<Table 2> Credit allocation of high school

Type	Subject areas	Subjects (subject clusters)	Required credits
General high schools	Physical education • Arts	Arts	10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5
High schools for special purposes			10
Vocational high schools			6

<Table 2>(MoE, 2022, p. 15)를 통해 유형별 예술 교과(군) 필수 이수 학점을 살펴보면, 일반고와 특목고는 10학점, 특성화고는 6학점 이상이 필수이다. 일반고 유형에 속하지만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이하 자사고)의 경우, 5학점 이상만 권장한다. 2002년 도입된 자사고는 일반고에 해당하는 유형이지만, 학교 운영에 있어 자율성이 보장되는 탈규제 학교로 현재 교육통계나 나이스에서 일반고와 구분하여 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 내용에서도 교육과정 학점 배당 기준구분에 따라 일반고와 자사고를 분리하여 그 수치를 비교하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 같은 학교 유형별 학점 배당 기준과 단위 학교의 과목개설 현황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한다. 보통 교과는 다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분하고,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구분된다.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이 편성하고 있는 보통 교과는 <Table 3>(MoE, 2022, p. 17)과 같다.

<Table 3> General subjects of high school

Subject areas	Subject clusters	Elective courses	
		General electives	Career-related electives
Physical education • Arts	Arts	Music	Music performance, Music appreciation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보통 교과 『음악』, 『음악 연주』, 『음악 감상과 비평』 과목을 개설한다. 보통 교과 외 전문 교과 I은 주로 예술 계열 특목고에서 개설하지만, 일반고나 특성화고도 개설할 수 있다.

<Table 4>(MoE, 2022, p. 18)는 예술 계열 전문 교과를 나열한 것이다. 『음악 이론』, 『음악사』, 『시창 • 청음』, 『음악 전공 실기』, 『합창』, 『합주』, 『공연 실습』 등 9개 과목이다.

<Table 4> Specialized subjects of high school(specialized subjects I)

Subjects (subject clusters)	Courses
Art strand	Music theory, Music history, Sight singing & ear training Practice in music major studies, Chorus, Ensemble & orchestra, Performance practice

다음 장에서는 이 같은 음악 선택 과목이 학교에서 얼마나 개설·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 내용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이후, 음악 선택 과목 개설 현황은 학교 유형별 어떻게 변화되어왔는지? 교육과정이 정하고 있는 교과(군)별 필수 이수 학점 배당 기준은 과목개설의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국·공, 사립의 설립 유형은 음악 선택 과목 개설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교하겠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2018년 1학기부터 2021년 2학기까지 나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전수조사하였다. 그중 직업 및 대안교육으로 분류되는 각종 학교, 방송통신고, 평생학교 등의 교육과정을 제외하고, 학년·계열·학과에 중복으로 개설된 과목을 삭제하여 과목명을 기준으로 정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공동교육과정을 제외한 단위 학교 교육과정으로 개설한 과목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대상의 분포 <Table 5>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https://kess.kedi.re.kr>)를 참고하였다.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2018년 2,358개교에서 2021년에는 2,375개교로 17개교가 증가하였다. 자사고를 포함한 일반고가 2018에는 72.5%의 비율이었는데, 2021년에는 72.7%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모든 유형별 고등학교의 증감 비율은 높지 않다.

<Table 5> The number of high schools from 2018 to 2021

Year	High school type	N	%
2018	General high schools	1,668	70.7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43	1.8
	High schools for special purposes	157	6.7
	Vocational high schools	490	20.8
	Total	2,358	100
2019	General high schools	1,667	70.7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42	1.8
	High schools for special purposes	158	6.7
	Vocational high schools	489	20.8
	Total	2,356	100
2020	General high schools	1,680	71.0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38	1.6
	High schools for special purposes	160	6.8
	Vocational high schools	489	20.6
	Total	2,367	100
2021	General high schools	1,688	71.1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38	1.6
	High schools for special purposes	161	6.8
	Vocational high schools	488	20.5
	Total	2,375	100

2. 분석방법

나이스 개설과목을 연도별 · 학기별로 구분하고, 설립별 · 유형별 · 학과별 · 과목별로 분류하였다. 모든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전체 교육 현상을 설명하고자 기술통계 기법을 사용하고, 평균과 표준편차 · 변량으로 해당 내용을 요약 · 해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음악 선택 과목 개설 여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2학기별 1개 이상 음악 선택 과목을 개설한 학교의 수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Number of schools offering music elective subjects by year

Year	open or unopened	1st semesters		2st semesters	
		N	%	N	%
2018	open	2,247	95.3	2,242	95.1
	unopened	111	4.7	116	4.9
	Total	2,358	100	2,358	100
2019	open	2,260	95.9	2,258	95.8
	unopened	96	4.1	98	4.2
	Total	2,356	100	2,356	100
2020	open	2,279	96.3	2,283	96.5
	unopened	88	3.7	84	3.5
	Total	2,367	100	2,367	100
2021	open	2,286	96.3	2,278	95.9
	unopened	89	3.7	97	4.1
	Total	2,375	100	2,375	100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된 2018년 1학기에는 95.3% 즉 2,247개의 고등학교가 음악 선택 과목을 개설하였다. 해를 거듭할수록 이 수치는 꾸준히 늘어 2021년 1학기에는 96.3%, 2,286개의 고등학교에서 1개 과목 이상 개설하였다. 매해 1학기 개설 수치와 2학기의 수치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음악 교과를 개설한 학교 중에서 학교 유형별로 그 변화의 추이를 정리하면 <Table 7>과 같다.

<Table 7> Current status of music elective subjects by type of high school

Year	High school type	1st semesters		2st semesters	
		N	%	N	%
2018	General high schools	1,633	97.9	1,629	98.0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39	90.7	39	90.7
	High schools for special purposes	141	89.8	143	91.1
	Vocational high schools	434	88.6	431	88.0
	Total	2,247	95.3	2,242	95.3
2019	General high schools	1,633	98.0	1,630	97.8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39	90.7	39	90.7
	High schools for special purposes	143	91.1	149	94.9
	Vocational high schools	445	91.0	440	90.0
	Total	2,260	96.0	2,258	95.8
2020	General high schools	1,646	98.0	1,651	98.3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38	100.0	38	100.0
	High schools for special purposes	150	93.8	152	95.0
	Vocational high schools	445	91.0	442	90.1
	Total	2,279	96.3	2,283	96.5
2021	General high schools	1,655	98.0	1,653	97.9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38	100.0	38	100.0
	High schools for special purposes	148	91.9	153	95.0
	Vocational high schools	445	91.2	434	88.9
	Total	2,286	96.3	2,278	95.9

2018년 1학기에는 자사고를 제외한 일반고가 97.9%, 특목고는 89.8%, 특성화고는 88.6%의 학교가 음악 선택 과목 중 1개 과목 이상 개설하였다. 2021년 1학기에는 자사고를 제외한 일반고 98.0%, 특목고 91.9%, 특성화고 91.2%의 학교가 음악 교과를 개설하여, 설립 유형별로도 매년 그 수치가 늘었다. 자사고는 2018년 1학기에는 90.7%로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전체 운영교가 43개교에서 38개교로 줄어든 2021년부터는 모든 자사고에서 음악 교과를 개설하였다.

이들 학교가 개설한 음악 선택 과목명을 정리하면 <Table 8>과 같다.

<Table 8> Name of music elective subjects opened by year

Subjects		2018		2019		2020		2021	
		1st	2st	1st	2st	1st	2st	1st	2st
Music	N	1841	1831	2089	2084	2123	2117	2068	2124
	%	78.1	77.7	88.7	88.5	89.7	89.4	87.1	89.4
Music performance	N	85	79	376	358	605	596	631	650
	%	3.6	3.4	16.0	15.2	25.6	25.2	26.6	27.4
Music appreciation & criticism	N	93	91	426	444	820	828	874	892
	%	3.9	3.9	18.1	18.9	34.6	35.0	36.8	37.6
Music theory	N	98	82	78	74	71	70	78	76
	%	4.2	3.5	3.3	3.1	3.0	3.0	3.3	3.2
Music history	N	55	56	53	54	47	53	47	48
	%	2.3	3.4	2.2	2.3	2.0	2.2	2.0	2.0
Sight singing & ear training	N	75	73	76	71	81	79	73	73
	%	3.2	3.1	3.2	3.0	3.4	3.3	3.1	3.1
Practice in music major studies	N	99	93	83	78	73	84	82	84
	%	4.2	3.9	3.5	3.3	3.1	3.5	3.5	3.5
Chorus	N	23	25	33	35	39	38	46	47
	%	1.0	1.1	1.4	1.5	1.6	1.6	1.9	2.0
Ensemble & orchestra	N	28	31	43	41	51	51	47	48
	%	1.2	1.3	1.8	1.7	2.2	2.2	2.0	2.0
Performance practice	N	61	68	67	69	63	68	60	63
	%	2.6	2.9	2.8	2.9	2.7	2.9	2.5	2.7
Music and career	N	979	993	430	438	0	0	0	0
	%	41.5	42.1	18.3	18.6	-	-	-	-
Music and life	N	701	690	180	165	1	0	1	0
	%	29.7	29.2	7.6	7.0	0.04	-	0.04	-
Chorus and ensemble	N	69	72	51	49	0	0	0	0
	%	2.9	3.1	2.2	2.1	-	-	-	-
Practice in liberal arts	N	32	30	22	23	0	0	0	0
	%	1.4	1.3	0.9	1.0	-	-	-	-
Music and media	N	20	21	13	11	0	0	0	0
	%	0.8	0.9	0.6	0.5	-	-	-	-

음악 선택 과목 중에서 가장 많은 학교가 개설한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 『음악』이다. 2021년 1학기 기준, 전국의 87.1%의 학교는 『음악』을 개설하였다. 진로 선택 과목 『음악

연주』는 2018년 1학기 3.6%의 학교에서 2021년 1학기에는 26.6%의 학교가 개설하였다. 진로 선택 과목 『음악 감상과 비평』은 2018년 1학기 3.9%에서 2021년 1학기에는 36.8% 개설하여 큰 폭으로 늘었다.

그 밖에 전문 교과 I 중에서 가장 많이 개설한 과목은 2021년 1학기 기준, 『음악 전공 실기』 3.5%, 『음악 이론』 3.3%, 『시창·청음』 3.1%, 『공연 실습』 2.5% 순이다.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의한 『음악과 진로』, 『음악과 생활』, 『합창·합주』, 『교양 실기』, 『음악과 매체』는 2020년부터는 개설하지 않는다.

2. 음악 선택 과목 개설 수

<Table 9>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학교가 학기별로 개설한 음악 선택 과목 개수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Table 9> The number of music elective subjects offered by year

Year		1		2		3		4		5~	
		N	%	N	%	N	%	N	%	N	%
2018	1st	762	33.9	1,249	55.6	122	5.4	44	2.1	68	3.0
	2st	771	34.3	1,231	54.8	134	6.0	48	2.1	62	2.8
2019	1st	1,075	47.7	885	39.2	195	8.6	35	1.6	65	2.9
	2st	1,087	48.1	877	38.9	187	8.3	42	1.9	63	2.8
2020	1st	1,062	46.6	950	41.7	179	7.8	29	1.3	60	2.6
	2st	1,070	46.8	932	40.9	195	8.5	30	1.3	57	2.5
2021	1st	975	42.6	1,027	44.9	195	8.5	35	1.5	58	2.5
	2st	952	41.8	1,038	45.7	194	8.5	35	1.5	59	2.6

2018년 1학기에는 33.9%인 762개교가 1개의 음악 교과를 개설·운영하였고, 55.6%인 1,249개교가 2개의 음악 교과를 개설하였다. 122개교는 3개, 44개교는 4개, 68개교가 5과목 이상 개설하였다. 2019년과 2020년에는 1개 과목만 개설한 학교가 늘었다가, 다시 2021년 1학기에는 57.4%인 1,311개교가 2개 과목 이상 개설하였다. 주목할만한 점은 3개 이상 개설하는 학교가 꾸준히 늘어 2018년 1학기 234개교였지만, 2021년 1학기에는 288개교가 한 학기 3개 과목이상 음악 교과를 개설하였다. 매해 1학기 수치와 2학기의 수치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Table 10>에 학교 유형별로 개설 개수의 추이를 정리하였다.

<Table 10> The number of music elective subjects offered by type of high school

Year		High school type		1	2	3	4	5~
2018	1st	General high schools	N	381	1,070	107	36	37
			%	23.3	66.1	6.6	2.2	2.3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N	9	27	2	0	1
			%	23.1	69.2	5.1	0	2.6
		High schools for special purposes	N	74	38	2	0	27
			%	52.5	27.0	1.4	0	19.1
	2st	Vocational high schools	N	298	114	11	6	5
			%	68.7	26.2	2.5	1.4	1.2
		General high schools	N	381	1,057	120	42	29
			%	23.4	64.9	7.4	2.5	1.8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N	14	21	2	1	1
			%	35.9	53.8	5.1	2.6	2.6
		High schools for special purposes	N	79	35	1	1	27
			%	55.2	24.5	0.7	0.7	18.9
		Vocational high schools	N	293	118	11	4	5
			%	68.0	27.3	2.6	0.9	1.2
2019	1st	General high schools	N	606	794	175	31	27
			%	37.1	48.6	10.7	1.9	1.7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N	20	16	0	1	1
			%	52.7	42.1	0	2.6	2.6
		High schools for special purposes	N	88	24	3	1	27
			%	61.5	16.8	2.1	0.7	18.9
	2st	Vocational high schools	N	362	54	17	2	10
			%	81.4	12.1	3.8	0.4	2.3
		General High Schools	N	611	801	157	34	27
			%	37.5	49.1	9.6	2.1	1.7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N	22	13	0	2	1
			%	57.9	34.2	0	5.3	2.6
		High Schools for Special Purposes	N	94	26	2	0	27
			%	63.1	17.5	1.3	0	18.1
		Vocational High Schools	N	360	56	10	3	8
			%	81.8	12.7	2.3	1.4	1.8

<Table 10> Continued

Year		High school type		1	2	3	4	5~
2020	1st	General high schools	N	568	864	164	27	23
			%	34.5	52.5	10.0	1.6	1.4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N	21	14	2	0	1
			%	55.3	36.8	5.3	0	2.6
		High schools for special purposes	N	104	19	0	0	28
			%	68.9	12.6	0	0	18.5
	2st	Vocational high schools	N	368	54	13	3	7
			%	82.7	12.1	2.9	0.7	1.6
		General high schools	N	569	857	178	25	22
			%	34.5	51.9	10.8	1.5	1.3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N	21	12	3	1	1
			%	55.3	31.6	7.9	2.6	2.6
		High schools for special purposes	N	108	14	2	0	28
			%	71.1	9.2	1.3	0	18.4
		Vocational high schools	N	371	49	12	4	6
			%	83.9	11.1	2.7	0.9	1.4
2021	1st	General high schools	N	487	935	178	33	22
			%	29.4	56.5	10.8	2.0	1.3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N	22	13	2	0	1
			%	57.9	34.2	5.3	0	2.6
		High schools for special purposes	N	99	21	0	0	28
			%	66.9	14.2	0	0	18.9
	2st	Vocational high schools	N	366	58	13	1	8
			%	82.3	13.0	2.9	0.2	1.6
		General high schools	N	468	949	185	29	22
			%	28.3	57.4	11.2	1.8	1.3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N	22	12	2	1	1
			%	57.9	31.6	5.3	2.6	2.6
		High schools for special purposes	N	103	22	0	0	28
			%	67.3	14.4	0	0	18.3
		Vocational high schools	N	359	54	9	4	8
			%	82.7	12.4	2.1	0.9	1.9

2018년 1학기에는 일반고 중 76.7%의 학교가 2개 과목 이상 음악 선택 과목을 개설하

였다. 자사고는 76.9%의 학교가 2개 과목 이상 개설하여 일반고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특목고는 52.5%, 특성화고는 68.7%의 학교가 1개 과목만 개설하였다. 이후 2021년 1학기에는 일반고 중 29.4%의 학교만 1개 과목을 개설하였지만, 자사고는 57.9%의 학교가 1개 과목만 개설하여 일반고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특목고 66.9%, 특성화고 82.3%의 학교도 1개 과목만 개설하였다. 2021년 일반고는 3개 과목 이상 개설하는 학교가 2018년에 비해 53개교나 늘었지만, 자사고·특목고·특성화고는 오히려 1개 과목만 개설하는 학교가 늘었다.

3. 설립별 음악 선택 과목 개설 비교

본 절에서는 음악 과목개설 수가 학교 설립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국·공립교와 사립교의 현황을 비교하고자 한다. <Table 11>부터 <Table 15>에 2021년 1학기 국·공립과 사립별 일반고, 자사고, 특성화고, 특목고의 음악 선택 개설과목 수를 정리하였다.

<Table 11> Comparison of the number of music selection subjects offered in all high schools

National • public high school			Private high school		
open	N	%	open	N	%
1	547	38.1	1	428	45.2
2	657	46.0	2	370	39.1
3	129	9.0	3	63	6.7
4	28	2.0	4	7	0.7
5~	18	1.3	5~	40	4.2
I~M	1~29		I~M	1~38	
M	1.88		M	2.17	
SD	1.65		SD	3.53	
σ^2	2.73		σ^2	12.44	

먼저, 유형 구분 없이 국·공립과 사립별 개설 수를 비교해 본 결과, 국·공립교 중 61.9%의 학교가 2개 과목 이상 개설하였고, 사립교는 54.8%의 학교가 2개 과목 이상 개설하여 설립별 개설과목 수에 차이가 있다.

비록 사립교의 개설과목 수 평균($M=2.17$)이 국·공립교($M=1.88$)에 비해 높지만, 사립교의 표준편차와 변량($SD=3.53$, $\sigma^2=12.44$)이 국·공립교($SD=1.65$, $\sigma^2=2.73$)에 비해 크게 높다. 이러한 이유를 파악하고자 학교 유형별 과목 선택권을 비교해보겠다. <Table 12>는 자사고를 제외한 일반고의 설립별 과목 선택권을 비교한 것이다.

<Table 12> Comparison of the number of music selection subjects offered in general high schools

National • public high school			Private high school		
open	N	%	open	N	%
1	239	25.5	1	223	36.1
2	558	59.6	2	330	52.2
3	110	11.7	3	52	8.2
4	25	2.7	4	6	1.0
5~	5	0.5	5~	16	2.5
I~M	1~9		I~M	1~17	
M	1.94		M	1.90	
SD	0.79		SD	1.30	
σ^2	0.62		σ^2	1.68	

일반고의 개설과목 수 평균은 국·공립고(M=1.94)와 사립고(M=1.90)가 비슷하고, 표준편차와 변량은 국·공립고(SD=0.79, $\sigma^2=0.62$)와 사립고(SD=1.30, $\sigma^2=1.68$) 간 차이가 있다. 일반고 중에서 한 학기 5개 이상 음악 선택 과목을 개설하는 학교는 대부분 음악 중점학교 운영교이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면 음악 선택 과목은 한 학기 2~4개 과목개설이 일반적인데, 사립고가 국·공립고에 비해 2~4개 과목개설 비율이 낮아 학생에게 부여되는 과목 선택권도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Table 13> Comparison of the number of music selection subjects offered in autonomous high schools

Public high school			Private high school		
open	N	%	open	N	%
1	20	22.7	1	23	60.5
2	49	55.7	2	12	31.6
3	16	18.2	3	2	5.3
4	2	2.3	4	0	0
5~	1	1.1	5~	1	2.6
I~M	1~7		I~M	1~9	
M	2.06		M	1.63	
SD	0.88		SD	1.35	
σ^2	0.78		σ^2	1.81	

<Table 13>은 자율고로 운영하는 학교 중 공립고와 사립고를 비교한 것이다. 평균, 표준편차, 변량이 공립고(M=2.06, SD=0.88, $\sigma^2=0.78$)와 사립고(M=1.63, SD=1.35, $\sigma^2=1.81$) 간

차이가 크다. 전체 자사고의 60.5%의 학교가 1개 과목만 개설하고 있어, 학생에게 부여하는 과목 선택권도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Table 14> Comparison of the number of music selection subjects offered in high schools for special purposes

Public high school			Private high school		
open	N	%	open	N	%
1	82	72.6	1	17	48.6
2	20	17.7	2	3	8.6
3	0	0	3	0	0
4	0	0	4	0	0
5~	11	9.7	5~	15	42.8
I~M	1~29		I~M	1~38	
M	2.7		M	11.75	
SD	5.00		SD	13.37	
σ^2	25.04		σ^2	178.85	

<Table 14>는 특목고로 운영하는 학교 중 공립고와 사립고의 개설과목 수를 비교한 것이다. 평균은 사립고($M=11.75$)가 공립고($M=2.7$)보다 월등히 높으나 표준편차, 변량이 공립고($SD=5.00$, $\sigma^2=25.04$)와 사립고($SD=13.37$, $\sigma^2=178.85$) 간 차이가 크다. 이는 음악 계열 학과 운영교에 의한 왜도가 높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특목고 중에서 공립 예술고는 11개교, 사립 예술고는 15개교이다. 예술고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특목고는 1개 또는 2개 과목의 선택권을 주고 있다. 사립 특목고는 예술고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학교가 1개 과목만 개설한다. 또 2021년 1학기 기준, 전국 20개의 과학고 중 2개 과목을 개설한 학교는 8개교, 1개 과목을 개설한 학교는 12개교이다. 전국 8개의 국제고는 전부 1개 과목만 개설하였다. 전국 30개의 외국어고 중 음악 과목을 개설한 학교는 28개교이며, 이들 학교 역시 1개 과목만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음악 과목 선택권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Table 15>는 특성화고의 설립별 수치를 비교한 것이다. 평균값은 사립고($M=1.4$)가 공립고($M=1.18$)보다 약간 높으나 표준편차, 변량이 공립고($SD=0.48$, $\sigma^2=0.23$)와 사립고($SD=1.08$, $\sigma^2=1.16$) 간 차이가 크다. 특성화고는 음악 계열 학과 운영교 대부분이 사립고이며 이들 학교의 왜도가 높다.

<Table 15> Comparison of the number of music selection subjects offered in vocational high schools

Public high school			Private high school		
open	N	%	open	N	%
1	206	84.8	1	160	79.2
2	32	13.2	2	26	12.8
3	4	1.6	3	9	4.5
4	0	0	4	1	0.5
5~	1	0.4	5~	6	3.0
I~M	1~5		I~M	1~8	
M	1.18		M	1.4	
SD	0.48		SD	1.08	
σ^2	0.23		σ^2	1.16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음악과 선택 과목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고등학교의 음악과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이후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음악 선택 교과 개설률은 모든 유형별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일반고보다 자사고, 특목고, 특성화고는 다 과목 개설 비율이 낮았다. 이러한 이유에 관하여는 교육과정 문서에서 정하고 있는 예술 교과(군) 필수 이수 학점 배당과 학교 설립에 의한 환경을 근거로 검토하였다. 일반고보다 상대적으로 필수 이수 학점 배당이 적은 자사고와 특성화고는 과목개설 개수가 현저히 적었다. 또 모든 유형별 고등학교에서 국·공립교에 비해 사립교의 과목개설 수가 적었다. 연구의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제7차 교육과정부터 고등학교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도입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확대와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보를 명시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의 고등학교가 개설한 음악 선택 과목을 조사한 결과, 해를 거듭할수록 음악 교과 개설 비율이 증가하였다. 유형별로는 2018년 1학기과 2021년 1학기 기준, 일반고가 97.9%에서 98%, 자사고가 90.7%에서 100%, 특목고가 89.8%에서 91.9%, 특성화고가 88.6%에서 91.2%로 증가한 것이다. 1·2학기 간 차이는 적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교교육 개편의 중심에 고교학점제가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 선택 교육과정의 전면적 운영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있어, 앞으로 고등학교 현장의 음악 과목개설 비율은 점차 확대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개설 비율의 증가가 과목 선택권의 확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음악과는 교과 영역에서 예술 교과(군)에 속한다. 예술 교과(군)에 속하는 미술 및 연극 과목 이수도 예술 교과(군) 이수로 누적·관리되기 때문에 단위 학교가 적극적으로 음악 선택 과목을 개설해주지 않는 이상, 음악 과목 선택권은 확보되기 어렵다. 문제는 고등학교의 음악 과목은 공통 과목 없이 모두 선택 과목이다. 선택 과목은 학생들이 자율적·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제공되어야 하는 과목이다. 학교가 지정과목으로 음악 선택 과목을 개설하도록 하는 것은 정책의 방향과도 맞지 않으며, 중학교 자유학기활동을 통해 자신의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도록 교육 받은 학생들에게 통하지 않는다.

선행 연구에서 파악한 것과 같이 학점제를 운영하는 다른 나라의 음악 선택 과목 이수 체계에 의하면(Hu & So, 2014; Park & Kim, 2021), 학교가 학생의 진로 진학에 필요한 과목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과정별 이수 체계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별로 매우 다양한 이수 과정과 과목 선택권을 보장해 주고 있다. 실효를 위해 지정과목과 과목별 학점을 최소한으로 지정하고, 동일 교과 내에 예술 분야 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하여, 열려있는 다양한 선택지 가운데 희망하는 예술 과목을 선택하도록 지원한다. 그러나 연구 결과, 우리나라는 교육과정 총론이 지정하는 졸업에 필요한 예술 과목 학점 배당 기준을 채우기에 급급하다. 음악 선택 과목도 학생의 수요를 반영하고,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선택지로 제공될 수 있도록 선택 과목 운용 체계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교 유형별로 졸업에 필요한 필수 이수 학점을 상이하게 정하고 있다. 음악 교과가 속한 예술 교과(군)의 필수 이수 학점은 일반고와 특목고가 10학점, 특성화고가 6학점이다. 자사고는 일반고에 해당하지만 5학점 이상만 이수하도록 총론에서 권장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음악 선택 과목 개설 수를 비교한 결과, 일반고는 해를 거듭할수록 3과목 이상 개설 비율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1년 1학기에 일반고의 70.6%의 학교가 2개 과목 이상을 개설했지만, 57.9%의 자사고는 1개 과목만 개설하였다. 특목고의 66.9%, 특성화고의 82.3%의 학교도 1개 과목만 개설하였다. 음악 계열 학과를 운영하는 특목고와 특성화고를 제외한 대부분의 특목고와 특성화고는 한 학기 1개 음악 과목만 개설한 것이다. 특히 예술 계열교를 제외한 과학·체육·외국어·국제 계열교 대부분이 학생에게 음악 교과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1개 과목만 개설한다.

자사고는 학교 운영에 있어 자율성이 보장되는 탈규제 일반고이다. 자사고에 예술 교과(군) 이수 권장 학점이 5학점이 된 배경을 알기 어려우나, 일반고와 비교하여 다과목 개설 비율이 낮다는 사실을 분석하였다. 특목고는 과학·체육·예술·외국어·국제 계

열 전문 인재 양성교이다. 이러한 학교가 설립 유형에 맞는 융·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예술 교과 개설과 확대를 권장해야 함에도 다른 교과 영역에 비해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이 현실이다. 예술 과목도 총론이 추구하는 교육목표와 핵심역량 함량을 위해 중요한 과목으로 자리매김하고, 과목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 마련과 안내가 필요하다. 자사고나 특목고, 특성화고 중에서 예술 계열학교나 중점학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음악 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하고 실질적으로 학생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주는 학교도 다수 존재한다. 이 같은 사례를 발굴하고 일반화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여 현장에 안내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셋째, 학교 설립별로 개설한 음악 선택 과목 수를 비교·고찰하였다. 2021년 1학기 개설과목 수를 비교한 결과, 모든 유형별로 국·공립교에 비해 사립교의 음악 선택 과목 개설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고의 경우, 국·공립교의 개설 수 평균은 1.94 과목, 사립고는 1.90으로 비교적 비슷하지만, 표준편차와 변량에서 국·공립교($SD=0.79$, $\sigma^2=0.62$)와 사립교($SD=1.30$, $\sigma^2=1.68$) 간 차이가 나타났다. 이하 학교 유형별·계열별로도 국·공립교와 사립교 간 차이가 컸다. 자율고는 평균, 표준편차, 변량이 공립교($M=2.06$, $SD=0.88$, $\sigma^2=0.78$)와 사립교($M=1.63$, $SD=1.35$, $\sigma^2=1.81$) 간 차이가 큰데, 전체 자사고의 60.5%의 학교가 1개 과목만 개설하고 있어, 학생에게 부여하는 과목 선택권도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특목고의 개설 수 평균은 사립고가 공립교보다 높으나 표준편차, 변량이 공립교($SD=5.00$, $\sigma^2=25.04$)와 사립교($SD=13.37$, $\sigma^2=178.85$) 간 차이가 큰데, 이는 예술고 값에 의한 왜도의 영향이다. 사립 특목고 중에서 예술고를 제외하면 모든 학교가 1개 과목만 개설한다. 특성화고도 음악 계열 학과 운영교 대부분이 사립교이며, 이들 학교에 의해 왜도가 높다.

학교가 학생에게 과목 선택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부여하는데 필요한 조건들이 있다. 이는 학생의 수요를 반영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는 물리적·환경적 제반에 관한 것이다. 학생 자신의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이수 경로 지도가 가능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고, 선택의 자율성이 보장된 수강 신청 단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선택할 과목에 관한 예측이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고, 학교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교수·학습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학생이 신청한 과목을 개설하기 위해 교사 수급이 원활해야 하고, 과목별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수급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또 강의실·운영·재정 확보 등에 있어 부담이 없어야 한다. 음악 교사는 다양한 음악 선택 과목 지도가 가능하고, 진로 이수 지도에도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공립교와 사립교가 제반 사항을 차별 없이 실현할 수 있는 협력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현재는 공동교육과정·온라인학교 등 학교와 지역의 경계를 허물고, 공간을 초월하여 교육받을 수 있는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고 있지만, 예술 교과(군)의 사례는 타 교과와

사례보다 많지 않다. 교사와 강의실 운영에 제약이 있는 음악 교과는 학교와 지역의 경계를 넘어 복잡한 문제를 다차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다. 교사 양성기관에서부터 고교학점제를 대비한 음악과 다과목 지도방안을 고민하고, 신설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교사 연수 트랙을 지원해야 한다. 음악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운영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의 사례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협력적인 교육 환경 구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과목 선택권의 의미를 ‘고르다’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고르기 위해서는 여럿이라는 수단을 제공해야 하는데, 학교는 그 여러 가지 수단 제공을 위해 어떤 음악 선택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선택은 고르다는 주된 의미 외에 ‘스스로 자유롭게’, ‘특별히 가려서’라는 행위의 전제로써 대상을 기대한다. 음악 선택 과목 확대와 학생의 선택권 확보는 이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 스스로 관심 있는 음악 과목의 선호를 가지고,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차원에서의 과목 ‘선택’권을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파악한 음악 선택 과목 개설 현황이 고교학점제에 기반한 음악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References

- Bae, S. Y. (2019). An analysis of arts curriculum of high schools in Seoul.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8(2), 37-59.
- Chung, K. H., Kim, J. A., Son, C. H., & Lee, J. D. (2017). High school innovation strategies for introducing a credit-based elective curriculum.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5(4), 201-229.
- Han, H. C., Lee, K. W., Lee, J. Y., & Lee, S. M. (2018). Study of expanding students' right to choose subjects at general high schools in rural communities.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8(4), 489-511.
- Han, H. J. (2011). A study on the possibilities of student-tailored high school curriculum -Focusing on the Ontario secondary curriculum in Canada-.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21(1), 75-99.
- Hong, H. J. (2000). A study on the practical meaning of 'selective' in curriculum design.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6(2), 155-201.
- _____ (2001). Subject-matter choice and subject-area choice in elective curriculum

- planning and implementation.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19(2), 53-76.
- Hong, W. P. (2011). Policy efforts for autonomous and diversified school curriculum: Paradoxical results and potential alternatives.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9(2), 23-43.
- Hong, W. P., Choi, Y. S., & Choi, B. K. (2019). A study on facilitating new courses in high school.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5(1), 491-511.
- Hu, B. K. (2004). Selective course to be seen at school scene.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2(3), 93-122.
- Hu, Y. J., & So, K. H. (2014). A comparison of high school students' rights to choose their course of study among Korea, England, New Zealand, and Japan.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24(1), 181-201.
- Ju, D. C. (2019).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recent German curricula for music clas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8(4), 223-251.
- Jung, E. J. (2020). Reinforcement of the selection right and substantialization of Korean music education under the introduc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Journal of Traditional Music Education*, 14(1), 213-240.
- Jung, K. H., Jo, S. H., So, K. H., Kwon, S. H., & Kim, J. A. (2006). *Diversification of operational system of curriculum in academic high schools*. Seou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Kim, J. A., Kim, H. W., & Kim, S. S. (2013). The limits and possibilities of curriculum differentiation identified through tracking pilot study in Korea.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1(1), 103-137.
- Kim, S. Y., & So, K. H. (2021). Exploring the way of designing the content system for the competency-based music curriculum: In comparison with the music curriculum in British Columbia, Canada.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0(2), 39-68.
- Lee, C. J., & Song, K. O. (2007). Competency development and mind enlightenment: The perspective of the doctrine of the mean(中庸). *Asian Journal of Education*, 8(4), 137-159.
- Lee, K. O. (2019). A study on the direction of high school curriculum.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8(2), 61-84.
- Lee, K. O., Kim, J. S., Lee, K. H., Han, H. J., & Lee, J. Y. (2017). *Mid-to long-term response to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Directions and tasks for implementing the learner-centered high school credit system*. Report of KICE (CRC-2017-9). Seoul: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 Lee, S. E., & Paik, S. H. (2019). Students' perception of and needs for selecting electives in research schools of high school credit system.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7(3), 79-105.
- Lee, S. J., Jeong, J. E., & Oh, J. H. (2022). An exploration of music elective-centered curricula through an analysis of foreign cases. *Journal of Future Music Education*, 7(2), 107-133.
- Lee, Y. M. (2022a). A study on the necessity of course opening for music and media subject matters for enhancing music digital literacy. *Research in Music Pedagogy*, 23(1), 39-119.
- _____ (2022b).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f music subject system and elective course organization on music curriculum of high school level according to open credit system: With a focus on Canada, Austrailia, America, and Finland.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20(2), 27-56.
- Ministry of Education (1997). *The national curriculum for the high school*, #1997-15, [Annex 4]. VA: Author.
- _____ (2021). *2002 revised curriculum overview key points (Draft, 2021.11.24.)*. VA: Author.
- _____ (2022). *The national curriculum for the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2015-74, [Annex 1]. VA: Author.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8). *The national curriculum for the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2008-148, [Annex 4]. VA: Author.
- _____ (2009). *The national curriculum for the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2009-41, [Annex 1]. VA: Author.
-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Standard korean dictionary. Retrieved November 20, 2022, <https://stdict.korean.go.kr>
- OECD (2005). *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DeSeCo)*. VA: Author.
- _____ (2018).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Education 2030*. VA: Author.
- Park, J. H. (2019). Comparative analysis of competencies presented in OECD education 2030 and 2015 revised music curriculum: Focusing on the degree of reflection of competency.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8(4), 161-180.
- Park, J. H., & Kim, J. H. (2021). A study on organizing and operating elective subjects in music curriculum according to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19(2), 133-151.
- Park, N. S. (2016). Is a 'tailored' high school curriculum possible or not?: A case study

of a curriculum cluster.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4(4), 49-69.

So, K. H. (2002). A study of the students' selective right in the selective-centered national curriculum.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0(4), 87-106.

Yang, J. M. (2017).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core competence and musical competence: Korea, Japan, Singapore, the United Kingdom, and USA.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6(4), 77-103.